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청년 열정페이의 특징과 시사점

- 열정페이 청년 63.5만 명, 청년 임금근로자의 17%에 달해

목 차

■ 청년 열정페이의 특징과 시사점

- 열정페이 청년 63.5만 명, 청년 임금근로자의 17%에 달해

Executive Summary	i
1. 개요	1
2. 청년 열정페이의 특징	2
3. 시사점	10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괄 : 김 동 열 이 사 대 우 (2072-6213, dykim@hri.co.kr)

정 책 조 사 실 : 이 준 협 연 구 위 원 (2072-6219, sododuk1@hri.co.kr)

Executive Summary

□ 청년 열정페이 특징과 시사점

■ 개요

‘열정페이’란 청년의 열정을 빌미로 한 저임금 노동을 뜻하며, 본 보고서에서는 ‘열정페이 청년’을 최저임금 미만의 15~29세 임금근로자로 정의하였다. 열정페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고용노동부가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정페이 청년에 대한 구체적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열정페이 청년을 추산하고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대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 청년 열정페이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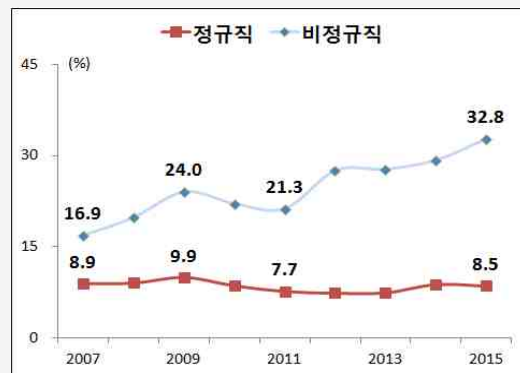
(추이 및 구성 측면) 첫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열정페이 청년이 감소하였으나 2012년 이후 다시 급증하고 있다. 임금근로자 청년 중 열정페이 청년 비중이 2007년 11.6%(45.1만명)에서 2009년 14.7%(53.9만명)로 악화된 후 2011년에 12.3%(44.9만명)로 개선되었으나 2015년에 17.0%(63.5만명)로 다시 급증하였다. 2012년 이후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상승률이 비교적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016년에도 최저임금이 8.1% 상승한 반면 경제성장률은 2%대 중반에 머물러 열정페이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둘째, 노동공급 측면에서 보면 저연령층과 대학 재학생 중에서, 노동수요 측면에서 보면 서비스업종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형태 측면에서 보면 비정규직과 임시일용직에서 열정페이 비중이 크고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기 후퇴기에 25~29세 청년보다는 15~19세 및 20~24세 청년이, 대학 졸업자보다는 대학 재학생이,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사무종사자보다는 판매종사자가, 대규모 사업장보다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상용직보다는 임시일용직이 더 큰 충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열정페이 청년 : 전체 >



< 열정페이 청년 : 근로형태별 >



주 : 비중(%)은 전체·정규직·비정규직 각각의 임금근로자 청년 대비 열정페이 청년 비중임.

(근로조건 측면) 셋째, ‘열정페이 청년’과 ‘열정페이 아닌 청년’의 임금 격차가 25배에 달하며, 최근 시간당 임금 격차가 개선되나 월평균 임금 격차는 지속되고 있다. 2015년 기준 열정페이 청년의 시간당 임금은 4,515원으로 비열정페이 청년 10,741원의 42.0% 수준이고, 열정페이 청년의 월평균 임금은 71만원으로 비열정페이 청년 185만원의 38.1%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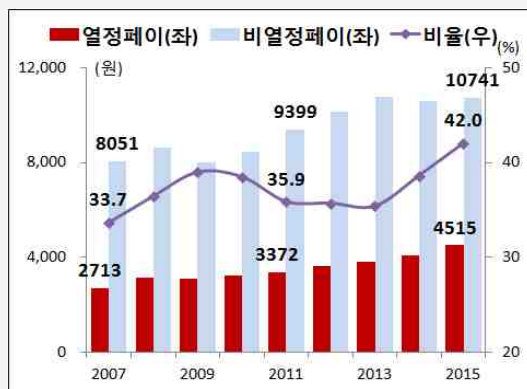
넷째, 공적연금, 고용보험, 장시간근로, 근로계약서 작성 등에서도 열정페이 청년과 비열정페이 청년의 격차가 매우 크고 확대되는 추세다. 2015년 기준 열정페이 청년과 비열정페이 청년의 공적연금 가입률은 각각 17.9%, 82.0%이고, 고용보험 가입률은 16.6%, 78.5%, 근로계약서 작성률은 27.8%, 69.7%로 격차가 크다.

다섯째, 교육훈련 등의 측면에서 열정페이 청년과 비열정페이 청년의 기회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일자리 상승 사다리’가 약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1년 동안 교육훈련을 받은 비율이 비열정페이 청년은 2011년 36.4%에서 2015년 59.5%로 크게 개선되었으나 열정페이 청년은 같은 기간 13.0%에서 19.0%로 소폭 상승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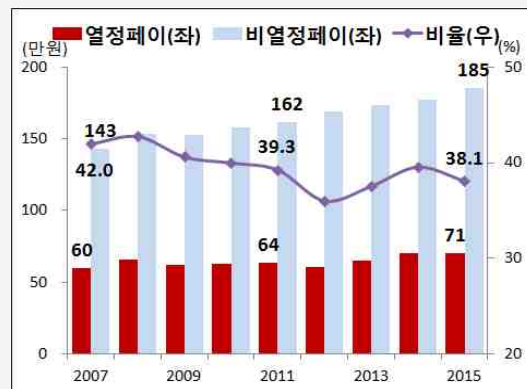
■ 시사점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이자 헌법에 보장된 기본 권리다. 최저임금 미만의 저임금 노동이 불법임을 감안하여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첫째,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고임금의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는 것이다. 둘째, 경기 후퇴기에는 영세 기업과 취약 근로자에게 고통이 집중되는 만큼 고용유지 장려금, 근로장려세제 등의 근로여건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셋째, 청년 중에서도 비정규직, 저연령층, 대학 재학생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함으로써 더 좋은 일자리로의 이동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넷째, 표준근로계약서 관행을 정착하고 필요시 범제화하며,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 시간당 임금 >



< 월평균 임금 >



1. 개요

○ (정의) '열정페이'란 청년의 열정을 빌미로 한 저임금 노동을 뜻하며, '열정페이 청년'이란 최저임금 미만의 15~29세 임금근로자로 정의

- 열정페이란 청년의 열정을 빌미로 무급 또는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주면서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태를 비꼬는 신조어

· 본래 의미의 '열정페이'는 국제기구, 국가기관 등 쉽게 직무경험을 하기 어려운 곳이나 사회적 기업, 인권단체 등에서 무급 또는 차비와 같은 최소한의 경비만을 지급하는 경우를 뜻함

- 본 연구에서 '열정페이 청년'이란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의 저임금으로 고용되어 있는 15~29세 청년으로 정의

· 임금근로자란 수입을 목적으로 1주일에 1시간 이상 고용되어 일한 사람으로서, 수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경험 수련생'¹⁾은 제외

· 최저임금이란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임금으로서, 헌법 제32조 ①항에는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연구목적)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열정페이 청년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열정페이 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에 기여

- 열정페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고용노동부가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정페이 청년에 대한 구체적 연구는 부재한 상황

< 2015년 8월 기준 열정페이 청년 현황 >

15~29세 청년	취업자	임금근로자	열정페이	非열정페이
948.9만 명	399.0만 명	374.0만 명 (100.0%)	63.5만 명 (17.0%)	310.4만 명 (83.0%)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를 활용하여 산출.

1) '일경험 수련생'이란 실습생, 견습생, 수습생, 인턴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업무)을 경험하는 자로서, 취업자가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됨. 고용노동부는 열정페이를 근절하기 위해 2016년에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

2. 청년 열정페이의 특징

(1) 추이 및 구성 측면

○ (추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열정페이 청년이 감소하였으나 2012년 이후 다시 급증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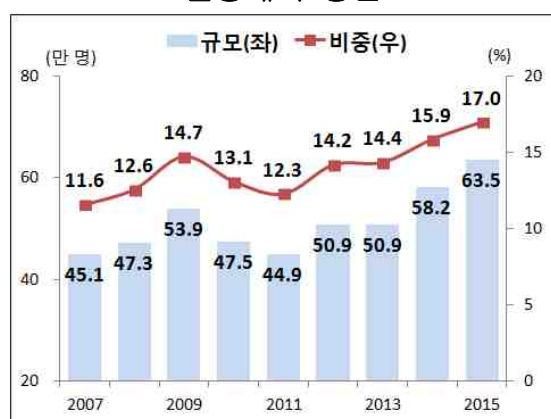
-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열정페이 청년이 급증하였으나 2010~2011년에 다시 예전 수준을 회복

- 임금근로자 청년 중 열정페이 청년의 비중이 2007년 11.6%(45.1만 명)에서 2009년 14.7%(53.9만 명)로 급등했다가 2011년에 12.3%(44.9만 명)로 하락
- 2007~2009년에 최저임금 상승률²⁾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 반면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성장률이 크게 하락하면서 열정페이 청년 급증
- 2010~2011년에는 최저임금 상승률이 떨어진 반면 경제성장률이 회복되면서 최저임금 미만의 열정페이 청년이 다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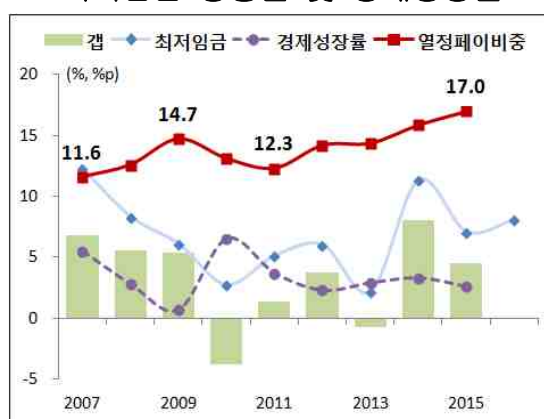
- 2011년 이후 열정페이 청년이 다시 급증하는 추세 지속

- 열정페이 청년이 2011년 44.9만 명에서 2015년 63.5만 명으로 급증하면서 임금근로자 청년 대비 열정페이 청년 비중도 12.3%에서 17.0%로 4.7%p 급등
- 2016년에도 최저임금이 8.1% 상승한 반면 경제성장률은 2%대 중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어 열정페이 청년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

< 열정페이 청년 >



< 최저임금 상승률 및 경제성장률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를 활용하여 산출.

주 1) 비중(%)은 임금근로자 청년 대비 열정페이 청년 비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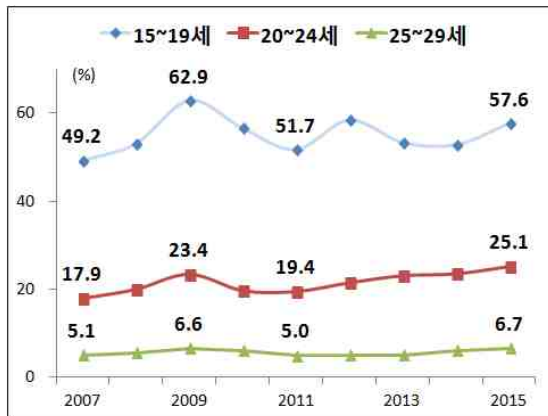
2) 갭(%p)은 최저임금 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의 격차를 뜻함.

- 2) 우리나라 최저임금(상승률)은 2007년 3,480원(12.3%), 2008년 3,770원(8.3%), 2009년 4,000원(6.1%), 2010년 4,110원(2.8%), 2011년 4,320원(5.1%), 2012년 4,580원(6.0%), 2013년 4,680원(2.2%), 2014년 5,210원(11.3%), 2015년 5,580원(7.1%), 2016년 6,030원(8.1%)임.
- 3) 2015년 OECD 25개국 평균 최저임금(구매력평가 환율 기준)은 연간 13,724달러, 한국은 13,668만 달러임. (OECD Statistics ; <http://stats.oecd.org/>)

○ (노동공급) 청년 중에서도 15~19세, 대학 재학생 중에서 열정페이 비중이 크고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성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연령별** : 청년 중에서도 연령이 낮을수록 열정페이 비중이 크고 가파르게 증가
 - 임금근로자 청년 대비 열정페이 청년의 비중이 15~19세는 2011년 51.7%(11.8만 명)에서 2015년 57.6%(14.8만 명)로 5.9%p 높아졌고, 20~24세도 19.4%(21.6만 명)에서 25.1%(34.7만 명)로 5.7%p 상승
 - 반면 25~29세는 5.0%(11.6만 명)에서 6.7%(14.1만 명)로 1.7%p 상승에 그침
 -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저연령일수록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남
- **학력별** : 대학 재학 중인 청년과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 중에서 열정페이 비중이 크고 가파르게 증가
 - 대학재학 중인 청년의 임금근로자 대비 열정페이 비중이 2011년 33.3%(25.1만 명)에서 2015년 42.8%(33.5만 명)로 9.5%p 급등했고,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도 13.4%(8.7만 명)에서 20.5%(13.6만 명)로 7.1%p 상승
 - 반면 대학을 졸업한 청년은 같은 기간 4.1%(9.1만 명)에서 6.4%(14.5만 명)로 2.3%p 상승에 그침
 -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대학 재학생이 더 큰 충격을 받음
- **성별** : 성별로 비슷한 추세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임금근로자 청년 대비 열정페이 청년의 비중이 남성은 2011년 12.4%(21.1만 명)에서 2015년 17.7%(31.4만 명)로 5.3%p 상승했으며, 여성은 12.2%(23.8만 명)에서 16.4%(32.1만 명)로 4.2%p 상승

< 열정페이 청년 : 연령별 >



< 열정페이 청년 : 교육상태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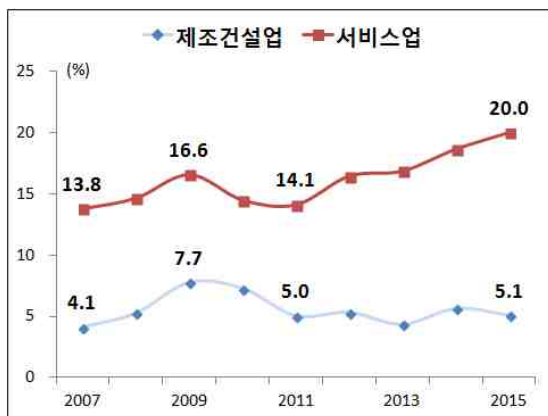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를 활용하여 산출.
 주 : 비중(%)은 연령별·교육상태별 각각의 임금근로자 청년 대비 열정페이 청년 비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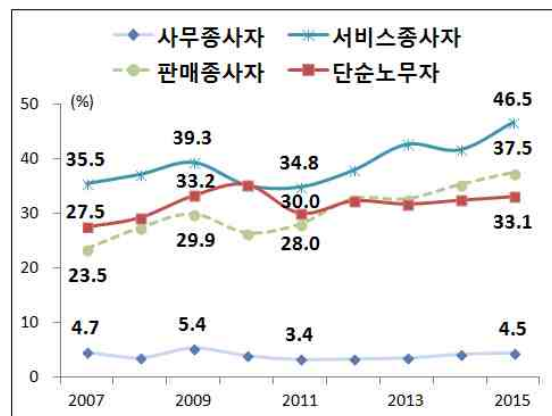
○ (노동수요) 서비스업, 판매종사자 및 단순노무자, 소규모 사업장에서 열정페이 청년 비중이 크고 가파르게 증가

- 산업별4) :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에서 열정페이 비중이 크고 가파르게 증가
 - 임금근로자 청년 대비 열정페이 청년의 비중이 서비스업에서는 2011년 14.1%(40.8만 명)에서 2015년 20.0%(59.4만 명)로 5.9%p 상승한 반면, 제조건설업에서는 5.0%(3.8만 명)에서 5.1%(3.9만 명)로 0.1%p 상승에 그침
 -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제조건설업과 서비스업 모두 부정적 영향을 받았지만, 2011년 이후 장기 저성장 국면에서는 서비스업에만 부정적 영향이 집중
- 직업별5) : 사무종사자에 비해 서비스종사자와 판매종사자, 단순노무자 중에서 열정페이 비중이 크고 가파르게 증가
 - 임금근로자 청년 대비 열정페이 청년의 비중이 서비스종사자 중에서는 2011년 34.8%(15.0만 명)에서 2015년 46.5%(24.8만 명)로 11.7%p 급등했고, 판매종사자 중에서도 28.0%(11.8만 명)에서 37.5%(17.2만 명)로 9.5%p 상승. 단순노무자 중에서는 30.0%(8.8만 명)에서 33.1%(11.1만 명)로 높은 수준 지속
 - 반면 사무종사자 중에서는 같은 기간 3.4%(3.4만 명)에서 4.5%(4.0만 명)로 매우 낮은 수준 지속
 -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2011년 이후 장기 저성장 국면에서 사무종사자는 별 충격이 없는 반면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단순노무자에 충격이 집중

< 열정페이 청년 : 산업별 >



< 열정페이 청년 : 직업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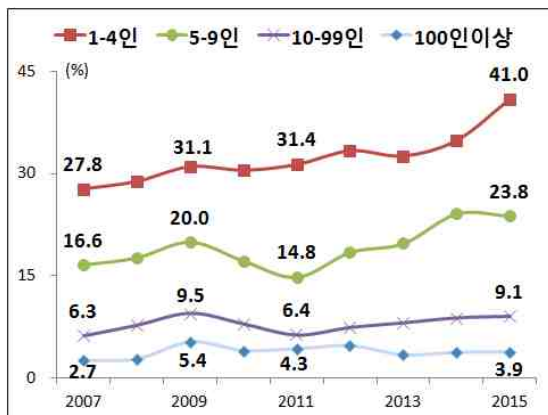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를 활용하여 산출.
 주 : 비중(%)은 산업별·직업별 각각의 임금근로자 청년 대비 열정페이 청년 비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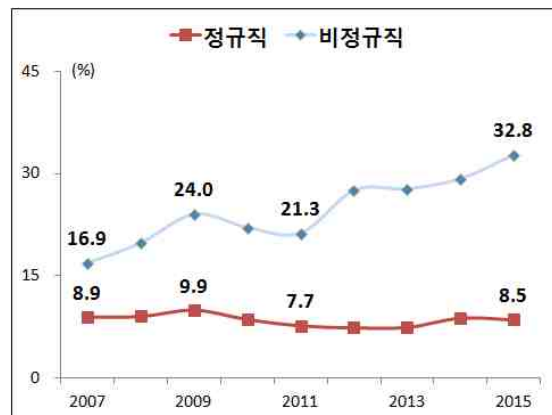
4)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2007년) 기준.
 5) 한국표준직업분류 6차 개정(2006년) 기준. 직업 종류 총 9개(관리자, 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종사자, 장치기계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중 대표적인 4개를 소개한 것임.

- 규모별 :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열정페이 비중이 크고 가파르게 증가
 - 1~4인 사업장에서는 임금근로자 청년 대비 열정페이 청년의 비중이 2011년 31.4%(21.9만 명)에서 2015년 41.0%(30.3만 명)로 9.6%p 급등했고, 5~9인 사업장에서도 14.8%(10.1만 명)에서 23.8%(16.6만 명)로 9.0%p 상승
 - 반면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같은 기간 4.3%(3.4만 명)에서 3.9%(3.2만 명)로 0.4%p 하락했고, 10~99인 사업장에서는 6.4%(9.5만 명)에서 9.1%(13.4만 명)로 2.7%p 상승에 그침
- (근로형태)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에서, 상근직에 비해 임시일용직에서 열정페이 비중이 크고 가파르게 증가
 - 정규직-비정규직 : 비정규직에서 열정페이 비중이 크고 가파르게 증가
 - 임금근로자 청년 대비 열정페이 청년의 비중이 비정규직 중에서는 2011년 21.3%(26.5만 명)에서 2015년 32.8%(42.9만 명)로 11.5%p 급등한 반면 정규직 중에서는 7.7%(18.5만 명)에서 8.5%(20.7만 명)로 0.8%p 상승에 그침
 -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2011년 이후 장기 저성장 국면에서 정규직은 별 충격이 없는 반면 비정규직에 충격이 집중
 - 상용-임시일용 : 임시일용직에서 열정페이 비중이 크고 가파르게 증가
 - 임금근로자 청년 대비 열정페이 청년의 비중이 임시일용직 중에서는 2011년 27.6%(42.1만 명)에서 2015년 39.9%(58.6만 명)로 12.3%p 급등한 반면 상용직 중에서는 1.3%(2.8만 명)에서 2.2%(4.9만 명)로 낮은 수준 지속
 -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2011년 이후 장기 저성장 국면에서 상용직은 별 충격이 없는 반면 임시일용직에 충격이 집중

< 열정페이 청년 : 규모별 >



< 열정페이 청년 : 근로형태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를 활용하여 산출.
 주 : 비중(%)은 규모별·근로형태별 각각의 임금근로자 청년 대비 열정페이 청년 비중임.

(2) 근로조건 측면

○ (임금) '열정페이 청년'과 '열정페이 아닌 청년'의 임금 격차가 25배에 달하며, 최근 시간당 임금 격차는 개선되고 있으나 월평균 임금 격차는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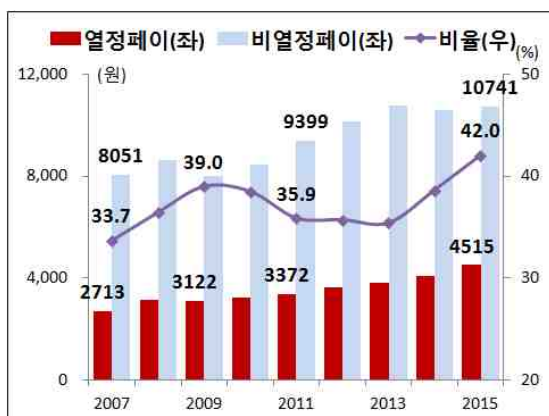
- 시간당 임금 : 열정페이 청년과 비열정페이 청년의 시간당 임금 격차가 최근 들어 좁혀지는 추세나 여전히 상당한 격차 존재

- 2011년 열정페이 청년의 시간당 임금은 3,372원으로 비열정페이 청년 9,399원의 35.9%에 불과하고, 2012~2013년에도 각각 35.7%, 35.4%로 낮은 수준 지속. 최저임금 인상률이 각각 6.0%, 2.2%로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2014~2015년에는 비열정페이 청년 대비 열정페이 청년의 시간당 임금 비율이 각각 38.6%, 42.0%로 개선. 2014~2015년에 최저임금이 각각 11.3%, 7.1%로 크게 인상됐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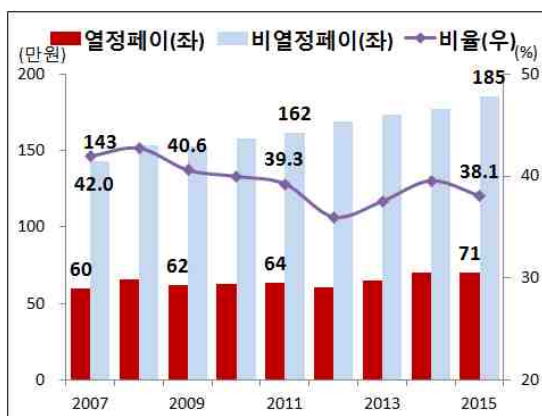
- 월평균 임금 : 열정페이 청년과 비열정페이 청년의 월평균 임금 격차 지속

- 2011년 열정페이 청년의 월평균 임금은 63.6만 원으로 비열정페이 청년 161.9만 원의 39.3%에 불과하고 2015년에도 38.1%를 기록
-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간당 임금이 개선되고 있지만, 열정페이 청년의 장시간근로 관행도 줄어들면서 1인당 임금은 비슷한 수준 지속⁶⁾

< 열정·비열정페이 청년의 시간당임금 >



< 열정·비열정페이 청년의 월임금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를 활용하여 산출.
 주 : 비중(%)은 비열정페이 청년 대비 열정페이 청년의 임금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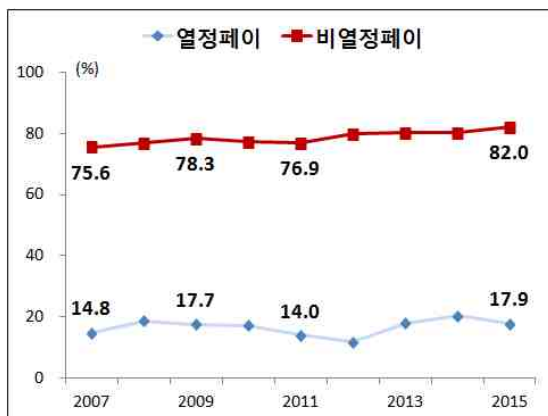
6) 장시간근로 관행은 p9 참조. 1인당 임금 수준이 향상되지는 않았지만,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고 장시간근로 관행이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근로여건은 개선된 측면 존재.

○ (연금·보험) 공적연금 및 고용보험 측면에서 열정페이 청년과 열정페이 아닌 청년의 근로조건 격차 상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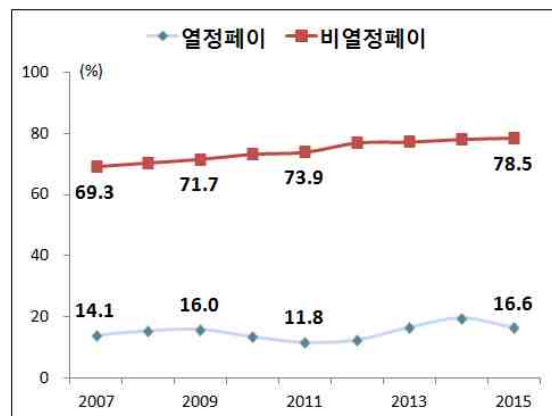
- **공적연금** : 열정페이 청년과 비열정페이 청년의 공적연금 가입률 격차 지속
 - 임금근로자 대비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이 비열정페이 청년의 경우 2011년 76.9%에서 2015년 82.0%로 5.1%p 상승하면서 높은 수준 지속
 - 반면 비열정페이 청년의 경우 같은 기간 14.0%에서 17.9%로 3.9%p 상승에 그치면서 낮은 수준에 머물
 - 정부가 비정규직·저임금 근로자의 공적연금 가입을 독려하고 있으나 열정페이 청년과 비열정페이 청년의 공적연금 가입률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음

- **고용보험** : 열정페이 청년과 비열정페이 청년의 고용보험 가입률 격차 지속
 - 임금근로자 대비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이 비열정페이 청년의 경우 2011년 73.9%에서 2015년 78.5%로 4.6%p 상승하면서 높은 수준 지속
 - 반면 비열정페이 청년의 경우 같은 기간 11.8%에서 16.6%로 4.8%p 상승하면서 낮은 수준에 머물
 - 정부가 비정규직·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으나 열정페이 청년과 비열정페이 청년의 고용보험 가입률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음

< 열정·비열정페이 청년 : 공적연금 >



< 열정·비열정페이 청년 : 고용보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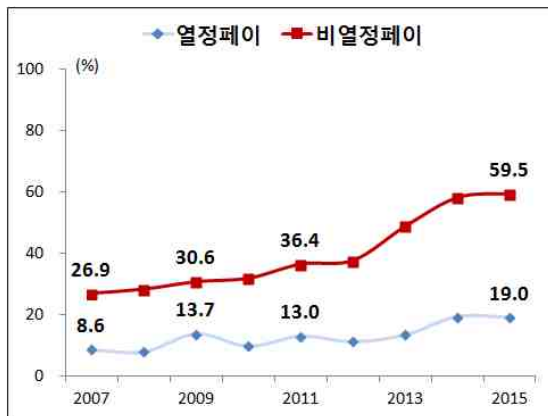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를 활용하여 산출.
 주 : 비율(%)은 열정페이·비열정페이 청년 각각의 고용보험 및 공적연금 가입 비율임.

7) 공적연금이란 국민연금 또는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뜻함.

○ (일자리사다리) 교육훈련 등의 측면에서 열정페이 청년과 열정페이 아닌 청년의 기회 격차가 상당하여 '일자리 상승 사다리'가 취약

- **교육훈련** : 열정페이 청년과 비열정페이 청년의 교육훈련 격차 확대
 - 비열정페이 청년의 경우 지난 1년간 직장에서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은 비율이 2011년 36.4%에서 2015년 59.5%로 23.1%p 크게 개선된 반면, 열정페이 청년은 13.0%에서 19.0%로 6%p 개선에 그쳐 낮은 수준 지속
 - 이는 교육훈련을 통한 더 좋은 직장으로의 이동 가능성이 점차 좁아지고 있음을 암시
- **일자리형태 선택사유** : 현재의 일자리에서 경력을 쌓아 더 좋은 직장으로 이동하려는 동기부여가 열정페이 청년 중에서 매우 부족한 상황
 - 열정페이 청년의 경우 “귀하의 일자리 형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는 질문에 “경력을 쌓아 다음 직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9.5%, 2015년 9.0%로 낮은 수준 지속
 - 반면 “당장 수입이 필요하기 때문에”라는 응답률은 2011년 24.8%, 2015년 20.8%에 달하며,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나 전공·경력이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라는 응답률도 13.2%, 14.2%를 기록
 - 다만 “학업·학원수강·직업훈련·취업준비 등을 병행하기 위하여”라는 응답률이 2011년 31.9%에서 2015년 35.4%로 소폭 상승하고 있어 일-학업 병행 혹은 일-직업훈련 병행을 위한 욕구는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열정·비열정페이 청년 : 교육훈련 >



< 열정페이 : 일자리형태 선택 사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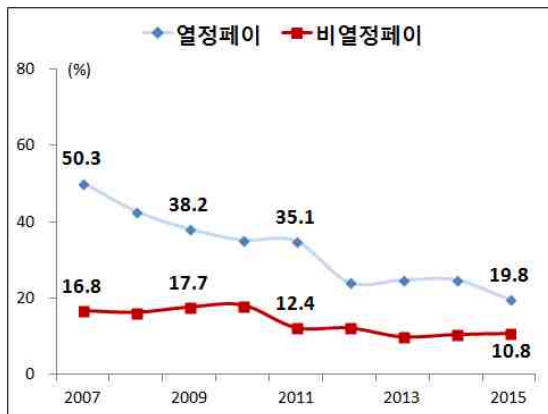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를 활용하여 산출.
 주 1) 교육훈련 비율(%)은 열정페이·비열정페이 청년 각각의 지난 1년간 교육훈련 경험 비율임.
 2) 일자리형태 선택 사유 응답률(%)은 열정페이 청년이 “귀하의 일자리 형태를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응답한 각 항목의 비율임.

○ (장시간근로·근로계약서) 열정페이 청년의 장시간근로 및 근로계약서 작성 관행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비열정페이 청년에 비해 열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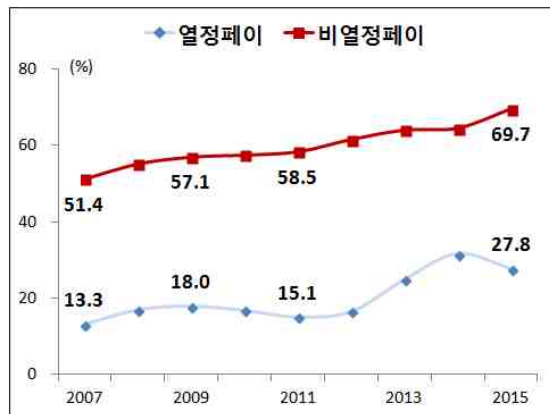
- 장시간근로 : 열정페이 청년의 장시간근로 관행이 크게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비열정페이 청년보다 심각한 수준
 - 비열정페이 청년의 경우 임금근로자 중 주당 52시간 초과의 장시간근로자 비중이 2011년 12.4%, 2015년 10.8%로 비교적 낮은 수준 지속
 - 열정페이 청년의 경우 2011년 35.1%에서 2015년 19.8%로 15.3%p 하락하며 크게 개선되었으나 비열정페이 청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
 -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는 가운데 장시간근로 관행이 줄어들면서 근로여건 개선. 다만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따라 1인당 임금은 증가하지 못하는 상태

- 근로계약서 작성 : 열정페이 청년의 근로계약서 작성 관행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비열정페이 청년보다 열악한 수준
 - 비열정페이 청년의 경우 임금근로자 중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이 2011년 58.5%에서 2015년 69.7%로 11.2%p 상승하며 비교적 높은 수준 지속
 - 반면 열정페이 청년의 경우 2011년 15.1%, 2015년 27.8%로 12.7%p 개선되기는 했으나 비열정페이 청년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 지속
 -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이 낮을수록 노사간 분쟁 소지가 커지고 부당하게 해고될 가능성도 증가

< 열정·비열정페이 : 장시간근로 >



< 열정·비열정페이 : 근로계약서 작성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를 활용하여 산출.
 주 1) 비율(%)은 열정페이·비열정페이 청년 각각의 장시간근로 및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
 2) 장시간근로란 주당 52시간 초과 근무를 뜻함.

3. 시사점

-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이자 헌법에 보장된 당연한 권리로서, 최저임금 미만의 저임금 노동이 불법인 만큼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뒤따라야 함
- 첫째, 청년 열정페이 해소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고임금의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는 것임
 -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재편하며 유망서비스업종 육성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
 - 연구개발 능력을 갖춘 강소기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
 - 교육, 안전, 소방 등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분야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
- 둘째, 열정페이 청년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서비스업종과 소규모 사업장, 판매종사자, 단순노무자, 비정규직에 대한 일자리의 질 개선 대책 강화
 - 열정페이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이 스스로 최저임금을 준수하되 장시간근로 행태를 개선해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이도록 유도
 - 저임금 청년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유지 장려금, 공적연금 및 공적보험 지원 등을 통해 비용부담 완화
 - 특히 지금처럼 경기가 부진할 때 열정페이가 급증하는 만큼 지원 확대 필요
- 셋째, 열정페이에 시달리는 청년이 많은 10대 후반과 20대 초반, 대학 재학생과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 기회 확대방안 강화
 - 직업능력이 미흡한 저연령층(10대 후반, 20대 초반)과 대학 재학생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 직업훈련 비용 지원 등 확대
 - 대학 내 일자리 창출 시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제도 강화
- 넷째, 청년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함으로써 일자리 상승 사다리 강화
 - 취약계층이 현재의 자리에서 충분한 경험과 경력을 쌓아 직장 내에서 혹은 더 좋은 직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강화

- 열정페이 청년을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영세 기업이 독자적으로 교육훈련이나 일-학업 병행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교육훈련 및 일-학업 병행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자금 및 인력 지원 대폭 강화
 - 정부가 올해 초에 발표한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일경험수련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용을 제한하며 교육훈련을 중시하고 있는 만큼, 사업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
- 다섯째, 표준근로계약서 관행 정착 및 법제화 고려
- 현재 고용노동부는 근로조건 개선에 활용될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양한 업종에 확대 보급하고, 노동관계법 교육·지도·점검을 통해 최저임금 등 근로조건을 개선에 전력하고 있음
 - 노사가 자발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지원하되 필요시 법제화까지 고려
- 여섯째,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 및 처벌 강화
-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감독을 통해 열정페이 근절과 근로조건 개선 유도
 -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을 확충하고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이 준 협 연 구 위 원 (2072-6219, sododuk1@hri.co.kr)